

국제기구 상품공동기금(CFC) 자문위원회 제43차 정기총회 참가

-주동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08. 1. 18 - 1. 26 (7박 9일)
3. 출장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 출장목적: 정부간 국제기구인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의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위원으로서 제43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5. CFC 조직 개요 및 출장 업무 내용
 - CFC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개발과 일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6월 UN이 결의하여 만든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2009년 1월 현재 107개 국가와 유럽공동체(EC), 아프리카연맹(AU) 등의 다자기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www.common-fund.org>

- 동기구의 조직은 총회(Governing 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총회는 전체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1회 정기 회의를 가짐.
 - 집행위원회(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28인의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CFC 운영과 관련된 일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 회의.
 -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CFC의 사업에 관해 집행위원회를 조언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회의
 -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은 임기 2년으로 현재는 탄자니아 출신의 외교관(전 주일본대사)인 Ali Mchumo임.
- 본인의 이번 출장 업무는 자문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정기회의(43차 정기회의) 참석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해온 원조 사업을 검토하고 CFC의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일이 주업무였음.

6. CFC 자문위원회 구성 및 43차 회의 경과

- 1월 19일 Ali Mchumo 사무총장의 주재로 CFC 본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4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후 의장단을 선출함.
- 자문위원회는 대륙별, 직능별 안배(정부, 업계, 학계 등에서 각각 1/3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장단을 선출하였음. 본인은 부서기

(Vice-Rapporteur)로 선출됨. 전체 명단은 첨부 문서 참조

Chairperson: Mr. Gangan Boriah (India)

Vice-Chairperson: Mr. Hans Dieter Seibel (Germany)

Rapporteur: Ms. Paulette Lyons Dodd (Jamaica)

Vice-Rapporteur: Mr. Dong-Joo Joo (Republic of Korea)

- Ali Mchumo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소개하면서, 자문위원은 회원국의 추천을 받았으나 국가 대표 개념이 아닌 전문가의 개념으로 개인적 능력(individual capability)에 기초해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람들임을 설명함. 따라서 특정한 국가의 입장을 떠나 지구촌의 빈곤 타파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공평무사하게 원조 사업들을 검토하고 심의해달라는 당부를 함. 이어 사무국에서 회의 관련 규정과 관행, 이번 회의 안건들을 설명함.
- 그 후 일주일 동안에 걸쳐 개발도상국들에서 요청해 온 원조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그 가운데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선정된 6개 사업은 다음과 같음.

우선 순위	Project Code	Project Title
1	CFC/FIGOOF/27	Development of Export-oriented Sesame Production & Processing in Burkina Faso and Mali
2	CFC/FIGG/43	Small Scale Cassava Processing and Vertical Integration of the Cassava Subsector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Phase 2
3	CFC/IJSG/21	Jute Geotextiles
4	CFC/IGO/45	Building Capacity in Coffee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in Eastern Africa
5	CFC/FIGG/44	Increased Production of Roots and Tubers Crop in the Caribbean

6	CFC/IFO/32	Development of Sugar Cane Variety Improvement and Seed Multiplication Programme for Nigeria and Cote d'Ivoire
---	------------	---

- 이밖에 다음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승인 사업(Fast Track Projects)으로 사무총장이 조속히 승인하여 시행토록 건의함.
- ◆ Item 7(a) Cocoa of Excellence: Unravelling and Celebrating Diverse Flavour Qualities of Cocoa to Promote Market Differentiation (CFC/ICCO/42/FT)
- ◆ Item 7(b) Senegal Used Lead Acid Battery (ULAB) Collection and Recycling Project (CFC/LZSG/18/FT)
- ◆ Item 7(c) Regional Dissemination Workshop for Value-added Leather Product Designs: Promoting the CFC/COMESA Collection (CFC/FIGHS/13/FT)
- 회의 과정에서는 13인의 전문가가 특정 상품별로 각각 1차 Commenter, 2차 Commenter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체로 최종 결정을 내림. 본인은 Metals에 대해 1차 Commenter, Fish에 대해 2차 Commenter를 맡음.
- 마지막으로 기존 수행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 2009년 Financing Plan, 향후 사업 심의 우선순위 개정, 사업평가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함 (보고서 첨부).

7. 출장 성과 및 제언

- CFC는 일차산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UN이 결의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나 미국, 캐나다 등이 개발도상국 주도에

반발해 가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납입자본금이 1억 7,800만 달러 (2003년), 사무국 상근요원이 30여명 수준인 소규모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111만 달러(0.63%)를 출자하였음.

- 그러나 CFC가 지원하는 사업은 관련 개발도상국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들로서 각국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CFC의 지원금 그 자체는 소규모 액수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의 역할을 함.
- 자문위원회는 규정상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자문기구이나 실제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집행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일차 심의기구임.
- 따라서 각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FC 집행위원과 자문위원에 자국측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있음.
-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집행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은 국가 대표라는 개념이 아닌 전문가 개념으로 선정되긴 하나, 한국측 추천위원이 선임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됨.
- 한국은 향후 국제기여 확대를 통해 세계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바, 동기구와 같은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임.
- 특히 CFC와 같은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기구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미지 구축 효과가 큰 만큼, 개발도상국 전문가를 확보하여 향후로도 의사결정기구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필요가 큼.

- 동기구의 사업은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 일차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일차산업의 제조업 연계를 통한 공업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업화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도 안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이번 회의에서 본인은 장기간 개발도상국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회의 관계자들 및 사무국측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함.
- 여러 기회에 한국의 개도국 지원사업들을 틈틈이 소개하면서 신흥경제강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알렸고, 한국의 산업화를 선도해온 KIET의 역할과 최근의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사업도 소개하여 당연구원의 홍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Ali Mchumo 사무총장은 금년 3-4월경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서 KIET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전달하였음. 정부를 통해 공문을 보내겠다고 언급하였음.
- 다음 정기회의는 금년 7월에 개최되며 자문위원들의 소속 대륙별로 사업평가회의가 열릴 때 참석이 요청됨.
- 제43차 CFC 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서 첨부. 끝.